

지역 수출 활력, 선배기업 멘토링 ‘뒷받침’

전북중기청, 멘토-멘티 기업 상견례·설명회 성료

전북지역 중소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배기업-후배기업 멘토링’이 본격 시동을 걸었다.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난 19일, 수출 경험이 풍부한 선배기업(멘토) 9개사와 도전적인 후배기업(멘티) 15개사가 참여하는 따뜻한 활기찬 상견례 및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멘토링 사업은 단순한 지원사업을 넘어, 생생하고 값진 현장 경험을 지닌 멘토기업이 직접 후배기업에게 노하우를 전수해 수출 초보기업들이 느끼는 막막함을 해소하고, 탄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북중기청은 이번 매칭을 위해 중소벤처진흥공단 전북본부, 전북테크노

파크,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왔다. 그 결과 업종과 제품 특성을 고려해 역동적이고 다양한 분야의 9개 멘토사와 15개 멘티사가 짝을 이루게 됐다. 이날 상견례는 본격적인 멘토링 시작에 앞서 서로를 이해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멘토링 추진 계획 소개, 특강, 유관기관 사업 설명 등이 진행돼 실질적이고 알찬 시간으로 꾸러졌다. 앞으로 멘토·멘티 기업들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고 유연한 방식으로 멘토링을 이어가게 된다.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은 유관기관이 신속히 지원, 연말에는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전북지역 중소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배기업-후배기업 멘토링’이 본격 시동을 걸었다.

전세희 청장은 후배기업들을 위해 선뜻 멘토로 나서주시 기업인들께 깊이 감사드리라며 “멘토사들의 소중한 경험과 노하우가 멘티사들의 든든한 발

판이 되어 시행착오를 줄이고, 지역 수출 확대의 밝은 희망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상진신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해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전했다.

상진신회, ‘사랑의 어부바박스’ 전달

추석 앞두고 따뜻한 나눔... 200만원 상당 생필품 지원

전주상진신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해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전했다. 전주상진신회는 지난 18일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주민센터에서 중앙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미숙)에 200만 원 상당의 ‘어부바박스’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생활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김현정 이사장을 비롯해 신회 임직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한 추석”을 다짐

했다. ‘어부바박스’에는 밀가루, 세제, 키친타올 등 꼭 필요한 생필품이 담겼다. 이를 통해 중앙동 일대 저소득·취약계층 가정의 명절 생활고를 덜고, 따스한 온정을 나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정 이사장은 “작지만 의미 있는 나눔으로 우리 이웃들이 조금 더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며 “전주상진신회는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는 든든한 협동조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여경협 전북지회, 여성기업 공공조달 활성화 간담회 개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가 여성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 확대와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협회 전북지회는 지난 19일 전북지방조달청 회의실에서 여성기업 지원 확대와 공공조달 활성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북지방조달청 관계자와 도내 여성기업인들이 참석해 △공공조달 진출 확대 방안 △입찰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제도 개선 의견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최근 새롭게 개편된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의 주요 변경 사항과 활용 방법에 대한 설명이 이뤄져, 여성기업인들이 한층 효율적으로 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지침이 제공됐다. 소정미 회장은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는 공공조달 참여 기회 확대가 핵심”이라며, “이번 간담회가 여성기업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변화된 제도에 발맞춰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국민연금공단, 창립 38주년 기념식... “국민 신뢰 강화” 다짐

연금개혁·복지서비스·기금운용 성과 공유... 새로운 도약 의지

국민연금공단이 창립 38주년을 맞아 국민 신뢰 강화와 변화·발전의 의지를 다졌다.

지난 19일 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전날(18일) 오후 2시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본부에서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38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김태원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공단은 지난 38년간 단순한 연금 관리·운영을 넘어 노인, 장애인, 기초수급자를 위한 종합복지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성장했으며, 1,200조 원 규모의 기금적립금을 운용하는 세계 주요 연금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특히 공단은 최근 △18년 만의 연금개혁 추진 △기금운용 수익률 15.0% 달성 △고객만족도 우수등급 및 역대 최고점수 기록 △공공기관 경영평가 9년 만의 A등급 달성 등 의미 있는 성

과를 거두며 주목받고 있다.

김 이사장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준 임직원들 덕분에 가능했던 성과”라며 감사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높아지는 눈높이에 부응하는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이사장은 향후 핵심과제로 △연금개혁의 차질 없는 시행과 고품질 연금서비스 제공 △투자 다변화와 위험관리 강화를 통한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제품위 있는 노후와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 구현 △디지털 기반 경영혁신과 공정한 기관운영을 통한 공공성과 효율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농협, ‘청춘버스’ 타고 농촌에 활력 전해

전북농협과 부안농협이 농업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시 한 번 발 벗고 나섰다.

두 기관은 지난 19일 부안군 백산면 임방마을과 백산다목적체육관에서 2025년 제2호 ‘농촌으로 찾아가는 청춘버스’를 운영하며 농촌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섰다.

전북농협의 특색사업인 청춘버스는 지역 대학과 유관기관의 다채로운 재능기부를 모아 농업인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표적인 복지 프로그램이다. 이날 행사에는 기전대·비전대·전북대·전주대 교수와 학생들이

참여해 인생사진 촬영, 피부·네일·헤어 미용서비스, 허브 화분 만들기, 벽화 그리기, 간식 나눔 등 짧은 에너지 가득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여기에 KBS전주방송총국,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 NH농협생협본부, 농가주부모임전북연합회, 농협생명·농협손해 전북총국 등 다양한 기관도 동참해 방송촬영 지원, 노후 전등·차단기 교체, 의료키트 지원, 뇌파·맥파 스트레스 검사, 갈증이, 무료 종식 지원, 사랑의 집 고치기 등 풍성하고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백산초 학생들과 함께한 우리 쌀 문화체험은 큰 호응을 얻었다. 학생들은 고향주부모임 전북도지회 회원들과 함께 농기구 체험과 쉼터 만들기 등에 참여하며, 우리 쌀의 소중한 가치와 농업인의 땀방울이 담긴 가치에 대해 배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주매일의 창간 17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진 안 군 농 업 기 술 센터

소장 노 금 선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